

벤처업계 “혁신성장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해야”

국회에 관련법 통과 ‘강력 촉구’
업계 과반수, 복수의결권 찬성
“약용 막는 안전장치도 충분”

벤처·스타트업계가 국회에서 낮잡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시민단체 등의 우려와 달리 복수의결권의 편법 활용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충분한데다 무엇보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복수의결권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새로운 것들이 아니고 그동안

〈아시아 주요 국가 복수의결권주식 상장제도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분	홍콩	싱가포르	인도	중국	
복수의결권 발행기업 상장허용	2018년4월	2018년6월	2019년6월	2018년9월	
발행요건	대상기업(상장사)	혁신적기업	주식회사	기술혁신기업	과학기술기업
	의결권수	O (10:1)	O (10:1)	O (10:1)	O (10:1)
	주식양도	O	X	O	O
소명요건	창업자 은퇴, 무능력, 사망	O	O	O	O
	기한부소멸	X	X	O (5년, 1회(5년) 연장가능)	X
상장후 신규발행 제한	O	O	O	O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정관 변경, 주주권 변경, 독립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 청산	정관변경, 주주권 변경, 독립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 역인수합병, 상장 폐지 및 청산	독립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 창업자의 자발적 지배권 양도, 이해관계자 거래의 승인, 청산 또는 구조조정, 정관변경, 중대한 거래, 사업목적 외 자금 사용 등	정관변경, 특별의결권 변경, 독립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및 해임, 합병·분할·해산	

안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대안이 마련된 것에도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 분노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 상임위, 정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그동안 노력이 존중되어야 하며 결코 헛되이 취급하지 말고 관련 도입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업계는 앞서 각 당에 전달

한 ‘혁신·벤처분야 2022 대선공약제안 자료집’에서도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과정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다.

차등의결권주식의 하나인 복수의결

권주식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법에선 기업이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1주당 2개 이상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스타트업계에선 현행 ‘1주 1의결권’ 상황에서 기업이 자금조

달을 위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경우 지분율이 희석돼 창업자의 경영권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업계의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21대 국회에서도 차등의결권, 복수의결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성명서에서 벤처·스타트업계는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약용 차단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 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벤처기업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88%, 벤처캐피탈의 66%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서울 강남·관악구, ‘창업밸리’로 키운다

중기부, 10년 만에 추가 지정
취득·재산세 감면 등 혜택

서울 관악구, 강남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구내 벤처기업은 취득세·재산세 37.5% 감면과 개발부담금 등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1년도 이후 10년만에 두 지역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벤처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거나 집적된 지역에 인프라를 지원, 협업형 한국형 벤처지구(밸리)를

조성하기위해 2000년부터 시작한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가운데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소재, 기반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엔 전국 26개 지역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돼 약 4200여개 벤처기업(2021년 9월 기준)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관악구는 청년인구만 39.5%로 서울시 가운데 가장 높은 청년층 인구와 서울대라는 지역기반을 활용해 벤처기업

의 입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악구청은 촉진지구 지정 후 200억 원 규모의 ‘지능형 대한민국 초대형 청년투자조합’을 조성하고 서울대공학상담센터의 기술상담을 통한 벤처·창업기업의 기술개발상의 애로사항 해결과 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남구 테헤란로 이면지역은 대로변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 등이 저렴해 자본력이 약한 창업기업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특히 중기부가 2015년 초기 벤처창업가를 위한 시설인 ‘팁스(TIPS) 타

운’을 처음으로 열면서 스타트업 집적지로 급성장했다.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197개사 중 135개사(68.5%)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LLC) 41개사 중 26개사(63.4%)가 강남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

강남구청은 창업기업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신규 지정지역 기업을 위한 530억원 규모의 강남창업기금을 조성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관악구와 벤처캐피탈들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 일대의 벤처촉진지구 제2벤처열기를 견인할 한국판 실리콘밸리와 기술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19일부터 선지급 신청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을 선지급하기위해 오는 1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이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선지급을 위한 신청은 19일부터 2월4일까지로, 첫 날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돼 구분해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12월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올해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보상금은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채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한다.

신청자는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김승호 기자

중견기업 위한 ‘한-이스라엘 기술협력센터’ 오픈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

한국의 우수 중견기업과 이스라엘 혁신 기업간 협업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요즈마그룹과 함께 ‘한-이스라엘 기술협력센터’의 문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양국의 민간주도로 연 기술협력센터는 우수한 제조·양산 기술을 갖춘 한국 중견기업과 이스라엘 혁신 스타트업·벤처기업 간 협력 지원 거점으로 운영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요즈마그룹이 함께 만든 기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왼쪽부터)이원재 요즈마그룹코리아 아시아총괄대표, 조성욱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아카비 토르 주한이스라엘 대사, 강호갑 중견련 회장, 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반원의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기술협력센터는 중견련의 한국 센터와 상반기 요즈마그룹에 설치될 이스라엘 센터를 상시 연결해 제조 혁신, 신사업 개척 등 중견기업의 다양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고 이스라엘, 유럽,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이와 함께 센터 운영의 효

율성과 사업 추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즈마그룹,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 중견기업과 이스라엘 혁신기업의 동반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전통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수준 높은 중견기업의 기술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가치로서 첨단 기술 변화의 최전방인 이스라엘 혁신기업의 만남은 그 자체로 거대한 글로벌 경제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협력 기관과의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가동하는,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중견기업 재도약의 서포팅 타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정부 “이번 주 사적모임·영업제한 등 거리두기 조정도 검토” /사진 뉴시스
- ▲ 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다른 것…배임 안 돼”



- ▲ “수기 안되나” 방역패스 첫날 백화점·대형마트 앞 혼란 /사진 뉴시스
- ▲ 경찰청장 “오스탬플라นต์ 횡령, 불법 행위 철저히 수사”

- ▲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20개월만에 증가 전환
- ▲ 간접누명 쓴 납북어부 유족, ‘고문기술자’ 이근안 상대 손배소